中國語文學 第61輯(2012. 12) 229-265쪽

譬喩系佛典 敍事特性 試論
- ≪舊雜譬喩經≫을 중심으로 -

卞 貴 南*

<目 次>

Ⅰ. 緖 言
Ⅱ. ≪舊雜譬喩經≫의 內容分析
1. 佛陀 및 그 弟子의 果報故事
2. 後代의 승려들과 관계있는 果報故事
3. 在家信徒의 因果應報를 강조한 고사
4. 男尊女卑思考를 반영한 고사
Ⅲ. 敍事形式의 特性
1. 구성 및 전개방식
2. 표현기교와 문체
Ⅳ. 중국 고전소설에 미친 영향
Ⅴ. 結 論

Ⅰ. 緖 言

漢譯經典은 중국불교철학의 이론적 근원일 뿐만 아니라 中國 古代敍事文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예술의 원천이기도 하다. 한역경전이 중국 고대서사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호적이 이미 ≪白話文學史≫에서 지적한 것처럼 漢譯經典의 편찬자들이 당시 성행했던 駢麗文을 번역문체의 표준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미전달을 위주로 하는 평이한 古文을 표준으로 채택한 점을 들 수 있다.[1)]

魯迅이 '釋氏輔敎之書'로 부른 위진남북조 지괴소설은 물론이고 돈황변

* 대구한의대학교 중국어과 부교수

1) 胡適, ≪白話文學史≫, 東方出版社, 1996, 115-116쪽 참조.

www.kci.go.kr

문 등 중국 고대 서사문학의 발전에 미친 한역경전의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지금까지 중국의 고대 서사문학과 초기 한역경전과의 상관관계, 특히 ≪百喩經≫·≪雜寶藏經≫ 등과 같은 '本生經'類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本生經'류 작품에 대해 丁敏은 ≪佛教譬喩文學研究≫에서 '譬喩'系佛典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 丁敏이 말한 譬喩(Avadāna)의 정의에 공감하므로 本考에서도 비유를 '因緣法을 보다 쉽게 깨우치기 위해 전생고사를 사례로 들어 聽者에게 설명하는 표현기교'로 정의하고자 한다. 초기의 한역경전 중에는 '비유'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경전이 여러 가지 있다. 後漢 支婁迦讖이 번역한 ≪雜譬喩經≫, 역자미상의 ≪雜譬喩經≫, 吳 康僧會가 번역한 ≪舊雜譬喩經≫, 道略이 엮은 ≪雜譬喩經≫, 姚秦 鳩摩羅什이 번역한 ≪衆經撰雜譬喩經≫이 ≪大正新脩大藏經≫ 제4권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 '譬喩'의 정의에 잘 들어맞고 문학성도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舊雜譬喩經≫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과 서술형식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래 중국학자 孫昌武는 ≪雜譬喩經譯注≫ 4種 合本을 출간한 바 있는데, 그는 ≪구잡비유경≫에 소개된 모든 고사를 일일이 분류하여 70개의 우언고사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本生故事는 성격상 원래

2) 丁敏은 자신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阿含經≫·≪撰集百緣經≫·≪賢愚經≫·≪雜寶藏經≫·≪大莊嚴論經≫·≪法句譬喩經≫·≪出曜經≫·≪雜譬喩經≫·≪百喩經≫ 등을 전통적 불교 서사분류법인 十二分教 중의 '譬喩(avadāna)'에 해당하는 서사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는 Avadāna에는 '行業'과 '譬喩(事例)'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유'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불교의 교리, 특히 인연법과 연관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언고사라고 보았다. 즉, 비유경전은 현재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대개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前生故事가 동원되며, 이러한 전생고사를 통해서 현재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때 현재의 사건 또는 전생의 고사를 따로 떼어내면 그 자체가 한편의 우언고사가 되는 것이다. (丁敏, ≪佛教譬喩文學研究≫, 東初出版社, 1996.) 陳蒲清도 ≪中國古代寓言史≫(湖南教育出版社, 1983.) 제4장 제30절에서 불경속의 심오한 인생철학을 우언고사를 이용하여 깨닫게 하는 이러한 譬喩故事들을 따로 분리하여 '佛經寓言'이라 명명하고 우언의 범주에서 논의하였다.

www.kci.go.kr

하나의 이야기에 두 개 이상의 고사가 첨부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모든 고사를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大正新脩大藏經≫에 실린 ≪구잡비유경≫의 원본에 따라 전체내용을 61편의 고사로 파악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Ⅱ. ≪舊雜譬喩經≫의 內容分析

≪구잡비유경≫의 譯者는 三國時代 吳國 康僧會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중국학자 陳洪은 <≪舊雜譬喩經≫硏究>에서 ≪舊雜譬喩經≫의 역자를 반드시 강승회로 볼 수는 없으며, ≪구잡비유경≫의 祖本은 唐代에 이루어졌다고 하였다.[3] ≪법원주림≫ 등에 ≪구잡비유경≫ 20則이 실려 있다고 하니 現存本 ≪구잡비유경≫의 祖本이 唐代에 성립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며, 강승회를 반드시 역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 강승회가 역자인가 어떤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구잡비유경≫의 梵文本 원본이 현재 전하지 않고 있으며, ≪經律異相≫·≪法苑珠林≫ 등에서 인용했다는 ≪구잡비유경≫의 祖本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잡비유경≫의 역자문제는 일단 본고의 연구과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수대장경본 ≪구잡비유경≫은 61편의 고사를 수

3) 陳洪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大正新脩大藏經≫ 4권에 실려 있는 ≪舊雜譬喩經≫은 61편인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이 梁代의 ≪經律異相≫과 唐代의 ≪法苑珠林≫ 등에 인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經律異相≫과 ≪法苑珠林≫ 등에 실린 작품-陳洪은 ≪舊雜譬喩經≫의 34則 '魚身本生'과 45則 '兎本生' 등을 비롯해 몇몇 고사의 字句 등을 상세히 비교하였다-은 현존하는 ≪구잡비유경≫의 내용과 자구가 조금씩 다르며 唐代에 유통되던 ≪구잡비유경≫의 祖本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六度集經≫의 역자임이 확실한 강승회가 ≪육도집경≫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동일한 작품인 ≪구잡비유경≫ 중 몇 편의 역자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陳洪, <≪舊雜譬喩經≫硏究>, ≪宗敎學硏究≫ 2, 2004.

www.kci.go.kr

록하고 있으며 고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小乘佛敎系의 經典群과 大乘佛敎系의 經典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4] 이 61편의 고사는 전체 내용을 볼 때 三世因果應報와 阿羅漢道·菩薩道 등을 선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그 가운데 몇 편의 작품은 인도 고대사회의 男尊女卑觀念을 반영하고 있다. 61편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佛陀 및 그 弟子와 관련이 있는 果報故事
② 後代의 승려들과 관련이 있는 과보고사
③ 在家信徒의 因果應報를 강조한 고사
④ 男尊女卑思考, 특히 여성의 성품을 비하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고사

이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現生故事에 前生故事나 未來生故事가 첨부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 많다. 이 기준에 따라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고 비유고사의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佛陀 및 그 弟子의 果報故事

우선 비유고사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의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 ≪구잡비유경≫의 27번 고사는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타고난 어느 부인의 일화이다. 그녀는 항상 '나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我

4) 소승불교의 敎義는 因果應報와 阿羅漢道를 중시하고 대승불교의 교의는 衆生救濟와 菩薩道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구잡비유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로 소승불교의 교리인 善業善果, 惡業惡果 등 인과응보와 윤회관념을 선양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54번부터 61번까지 7편의 고사에는 대승보살을 선양하는 내용이 이야기의 주요 골격이다. 그러므로 ≪구잡비유경≫의 梵文원본은 소승계의 일부 경전과 대승계의 일부경전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당시의 역자도 본 경전의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雜'이란 글자를 제목에 넣어 이 경전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www.kci.go.kr

無所亡)'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녀의 아들이 한 번 시험해보기 위해 어머니의 금반지를 몰래 강물에 던져 버렸다. 그 부인은 며칠 뒤에 目蓮·阿那律·大迦葉 등 아라한을 공양하기 위해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오도록 했다. 하인이 사온 물고기 뱃속에서 금반지가 발견되자 부인은 아들에게 '나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아들은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연유를 물어보았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 "옛날에 어떤 仙人이 북쪽에 살고 있었다. 추운 겨울철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산의 남쪽으로 갔다. 당시 한 나이 많은 부인은 가난해서 떠날 수 없었으므로 홀로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보관하였다. 봄에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자 노부인이 물건 하나하나를 모두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그 때의 홀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이다. 전생에 여러 사람의 재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셨다.[5]

이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 재가신자였던 어떤 노부인의 이야기로서 비유고사의 일반적인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의 발단부분을 보면 부유하게 사는 어떤 노부인이 먼저 소개된다. 그녀는 어떤 물건이든 손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타고난 여인이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그녀의 아들이 일부러 그녀의 금반지를 강에 던졌지만 신기하게도 금반지는 그녀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더구나 그 계기는 그녀가 부처님의 대제자 목련·대가섭·아나율 등에게 공양할 음식을 준비하다가 되찾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노부인이 반지를 잃어버린 것은 현생의 사건에 해당된다. 반지가 다시 나타난 것에 놀란 그 아들은 부처님을 찾아 그의 어머니의 전생에 대해 묻

5) ……佛言。昔有一仙人居北。陰寒至冬天。人人悉度山南。時有老獨母。貧窮不能行。獨止爲衆蓋藏器物。春人悉來還。母以物一一悉付還其主。衆人皆歡喜。佛言。時獨母者是汝母。前世護衆人物故。得是無所亡福耳。≪舊雜譬喩經≫ 27則, ≪大正新脩大藏經≫ 4, 515쪽。

www.kci.go.kr

는다. 이에 부처님이 이야기해주는 전생이야기는 현생의 사건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유형이 비유고사의 기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전생의 사건을 A라고 하고 미래의 사건을 B라고 가정할 때 신수대장경판 ≪구잡비유경≫에서 때때로 별개의 이야기가 2편 이상 연결된 사례를 볼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A사건과 B사건은 원인 및 결과의 상호관계를 가지는 二段構成이다. 앞의 이야기는 因果律, 즉 善人善果와 惡因惡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불타는 제자와 재가신자에게 因果律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의 과보를 예상하여 현생에서 福業을 쌓고 수행에 힘쓰기를 권유하고 있다. 31번 고사에서 부처님이 舍衛城에 이르러 어떤 淸信女로부터 공양을 받게 되자 그녀에게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열 개가 열릴 것이오, 열 개의 씨앗을 심으면 백 개가 열릴 것이오, 백 개의 씨앗을 심으면 천 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 개가 열리고, 억 개가 열리게 되며 진리를 얻을 것이다(種一生十, 種十生百, 種百生千。如是生萬生億, 得見諦道.)'[6]라고 축원하였다. 이 때 佛法을 믿지 않았던 그 淸信女의 남편은 '어찌 한 발우의 공양으로 그렇게 많은 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붓다에게 질문한다. 붓다는 '니그로다 나무는 아주 높고 열매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씨는 겨자만 하지 않은가' 하고 반문하여 상대를 납득시킨다. 이에 부부는 지혜의 안목이 열려 須陀洹果를 얻었다고 한다. 또 30번 고사에서는 어떤 승려가 식사 후에 얼굴 화장을 지우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자, 아난이 부처님께 그 비구의 法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알렸다. 부처님은 그가 [전생에] '여자의 몸에서 왔으므로 남은 자태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適從女中來, 餘態未盡故耳)'라고 해명하였는데, 과연 곧바로 그 비구는 아라한이 되어 열반에 들었다.[7] 이러한 고사들은 모두 因果律과 須陀洹果, 斯陀含果, 阿那含果, 阿羅漢果 등 小乘四果를 선양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의 작자들은 소승불교

6) 같은 책, 515쪽.
7) 같은 책, 515쪽.

www.kci.go.kr

의 수행법과 수행과위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승불교의 수행법이나 수행과위를 집중적으로 선양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구잡비유경≫ 35, 54, 55, 56, 58, 59, 60, 61번 고사 등 8편의 작품은 대승불교의 수행법과 수행과위를 선양하고 있는 내용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58번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8] 어떤 나라의 백성들이 성품이 어리석고 사나웠으므로 교화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目蓮尊者가 그 나라 백성들을 제도하겠다고 나섰으므로 부처님은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백성들이 목련존자를 욕하고 꾸짖었으므로 교화에 실패하였다. 다음으로 舍利佛이 지혜로써 제도하겠다고 그 나라로 가보았지만 역시 그 나라 백성들이 욕하고 꾸짖었으므로 교화에 실패하였다. 두 尊者가 수난을 당하는 것을 본 阿難尊者는 붓다에게 '저 백성들의 죄가 무거워 허공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붓다는 文殊菩薩을 보내어 교화하도록 했더니 문수사리보살은 그 나라 백성들을 잘 교화하여 붓다의 설법을 믿고 따르도록 했다. 이 고사의 결말부분은 다음과 같다.

> 문수사리보살은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나의 스승께 올리는 것만 못하다.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라 불리는데, 가서 함께 공양드리면 복이 한량없이 많으리라." 이에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문수사리보살을 따라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자 그들은 즉시 아유월치[不退轉智]의 경지가 열렸다. 이에 삼천세계의 국토가 크게 진동하였으며 산림의 수목들도 모두 찬탄하였다. "문수사리보살이 이와 같이 잘 제도하신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깊고 큰 죄업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오백 아라한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보살의 위신력으로 교화함이 이와 같구나. 하물며 여래라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들은 썩은 무리로 중생에게 이익이 없다."[9]

8) 같은 책, 520쪽.

9) ……文殊師利謂人民曰。汝供養我不如與我師。我師名佛。可往共供之。福倍無量。一切甚悅。隨文殊師利往詣佛所。佛爲說經, 應時卽得阿惟越致。三千國土爲大震動。山林樹木皆讚言嗟。文殊師利善度如是。佛告阿難。深大之罪今爲所在。五百羅漢躃地淚出。菩薩威神所化如是。何況如來可復稱說耶。我爲敗種無

www.kci.go.kr

문수보살의 존재가 경전에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대승불교 출현 이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고사를 보면 붓다의 대제자 목련, 사리불이 참여한 會上에 문수사리보살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만일 이 경전이 소승계의 경전을 번역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장면인 것이다. 게다가 목련과 사리불 같은 아라한이 성공할 수 없었던 중생교화를 문수사리만 완성하였다는 구절은 소승계 경전에서는 불가능한 설정이다. 왜냐하면 소승의 修行果位에서는 아라한이 최고의 경지이므로 아라한이 중생구제를 하지 못한다든가 아라한이 하지 못한 중생구제를 보살이 할 수 있다든가 등의 설정은 소승경전의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이다.[10]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8편의 작품에서는 대승계 경전에서 나타나는 보살관념이 흔히 출현하고 있고, 더구나 아라한과 불보살의 과위 차이를 표현한 작품도 두 편이나 수록되어 있다. 55번 고사에 수록된 사리불의 일화와 56번 고사에 수록된 목련의 일화가 그러한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일화는 사리불, 목련 등의 아라한이 자신들의 신통력과 수행이 부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뉘우친다는 내용이다. 이 중 56번 目蓮故事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한다.

어느 날 목련이 자신의 神眼으로 팔천이나 되는 부처님세계를 살펴보고

益一切也。같은책 58則, 520쪽。

10) 히라카와 아키라는 ≪인도불교의 역사≫(상), 이호근 역, 민족사, 1994. 280-290쪽에서 대승불교의 원류를 부파불교의 계속적 발전, 불전문학, 불탑신앙 등에서 찾고 있다. 히라카와의 견해에 의하면 ≪반야경≫·≪화엄경≫·≪법화경≫ 등의 본격적 대승경전이 출현하기 이전에 비유계경전(avadāna)이 출현하여 대승불교의 원류가 되는 사고들이 경전문학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過去佛·未來佛의 사상이라든가 보살의 존재 등은 대승불교 경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소승불교의 기반이 되는 교리들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 ≪구잡비유경≫에서는 이처럼 과거불·미래불사상은 물론, 보살사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8편이나 된다. 이들 작품을 바로 대승경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작품들은 대승계 경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www.kci.go.kr

부처님의 神眼이라 해도 나보다 못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부처님께 갔다. 부처님이 목련에게 찾아온 이유를 물으니 목련은 자신이 팔천의 불국토를 볼 수 있다고 아뢰었다. 부처님이 이마의 광명을 놓자 수많은 불국토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목련이 크게 쓰러지면서 통곡하고, '부처님의 신안이 이 정도임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뉘우쳤다. 또한 대중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아라한의 도에 뜻을 두지 않고 佛世界의 道에 뜻을 두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어서 목련존자는 다음과 같이 대중에게 권한다. "세존께서 나를 신통력 제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말할 것조차 없습니다. 제가 지은 공덕도 세존의 이러한 경지에는 미칠 수 없으니, 하물며 [아라한의 경지를] 얻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마음을 일으켜 공덕을 짓는 바가 응당 그 뜻이 부처님과 같아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본받아 쓸모없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11]

이러한 목련존자의 언급은 아라한도와 불보살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고사의 저자는 소승계열의 수행자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55번 사리불고사 역시 사리불이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維衛佛國에 갔다가 維衛佛로부터 不退轉法을 듣고 부처님에게 자랑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으로부터 이른바 불퇴전법을 과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내버리는 銅, 鐵 등을 얻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뉘우친 내용이다. 이처럼 ≪구잡비유경≫에 나오는 부처님과 제자들 일화에는 소승의 阿羅漢果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대승의 菩薩道를 강조하고 찬양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 後代의 승려들과 관계있는 果報故事

내용상으로 볼 때 ≪구잡비유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 및 그 제자들의 비유고사가 대략 24편이며, 기타 국왕 등 일

11) 世尊說我神足第一。尙不足言。所作功德不及知此。何況未有所得者耶。發心所作當志如佛。莫得效我, 化爲敗種。앞의 책, 519쪽。

www.kci.go.kr

반 신자와 관련된 비유고사가 약 19편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후대의 일반 승려들과 관련된 비유고사 약 10편이라고 하겠다. 이 밖에도 여성의 성품을 비하하는 내용의 남존여비관념을 담고 있는 작품도 5편이나 된다. 따라서 ≪구잡비유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인과응보·보살사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교리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등장인물의 신분과 대승·소승관념의 차이 등을 세밀히 구분해보면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복잡함을 알 수 있다. 후대 승려들의 本生談과 관련이 있는 고사들은 14, 28, 29, 32, 36, 39, 41, 52, 53번 등 대략 10편 정도로 생동감 넘치는 비유고사가 많다. 그 가운데 아쇼카왕시대의 어느 젊은 승려이야기인 14번 비유고사를 줄여서 소개하기로 한다.

> 옛날, 아쇼카왕이 날마다 1,000명의 아라한에게 공양을 드리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1,000명의 아라한과 함께 들어와 공양을 하게 되었다. 그 젊은 승려는 먼저 궁전의 위아래를 계속 살펴보더니 왕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아쇼카왕은 공양이 끝나자 상좌승 3명을 불러놓고 이 일에 대해 추궁하였다. 그러자 승려들은 "그 젊은 승려는 뛰어난 수행자로 왕의 궁전을 쳐다본 것은 궁전을 본 것이 아니라 忉利天의 즐거움을 살펴본 것입니다. 왕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 것은 그녀의 복이 한량없지만 일주일 후에는 목숨을 마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므로 인생의 無常함을 관찰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뜻밖의 설명에 당황한 아쇼카왕은 상좌승에게 왕비를 귀의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세 명의 상좌승은 1,000명의 아라한 중에서 왕비를 귀의시킬 수 있는 법력을 가진 승려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그 승려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쇼카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젊은 승려를 초청하여 왕비가 설법을 듣도록 했으며, 마침내 왕비는 須陀亘果를 얻게 되었다.[12]

14번 고사는 신수대장경본에 따르면 두 개의 고사가 들어있다. 첫 번째

12) 같은 책, 513쪽.

www.kci.go.kr

고사는 비구로서 어떤 여인과 정을 통했던 승려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승려의 사미를 시켜 수미산의 甘泉水를 떠오게 하였다. 그 사미는 이미 득도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다녀왔다. 이에 승려는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위에서 소개한 이야기로서 전체의 주제는 因果律에 대한 것이다. 고사의 말미에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전생의 인연이 없으면 끝내 해탈할 수 없고 서로 만날 수도 없으며,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나니, 사람에게는 각기 전생의 스승이 있는 법이다."[13]라는 구절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 이야기는 宿命, 곧 前生-今生-來生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스승을 만나는 것도 반드시 숙명이 있어야 한다는 인과율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자체는 무척 흥미로워서 한편의 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 아쇼카왕의 왕궁, 그리고 공양을 받으러온 1,000명의 아라한, 그리고 건방진 모습의 젊은 승려가 이야기의 무대에 등장한다. 왕으로서의 자만심과 남성으로서 느끼는 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치 그 젊은 승려를 당장에 처형시킬 것 같은 기세였으나 장로승의 설명을 듣고 크게 꺾인다. 왕은 왕비가 일주일 뒤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충격적인 설명에 그러한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그때서야 젊은 승려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의 비밀이 밝혀진다. 인과율의 불가피성, 숙명의 힘에 대해서는 32번 고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2번 고사에 나오는 어떤 승려는 이미 선정을 잘 닦아 阿那含果[不來果]를 얻었다. 그러나 산 위에서 풀을 삶아 가사를 물들이다가 소를 잃어버린 소치기에게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솥 속의 물건은 모두 소뼈로 변했고 바리때는 소머리뼈로 바뀌었기 때문에 승려는 꼼짝없이 소도둑으로 몰려 고생하게 되었다. 그 제자는 선정의 힘으로 스승의 행방을 찾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급히 찾아가서 까닭을 물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13) ……師曰, 人無宿命終不從解, 亦不相見, 語言終不入意, 人各有本師也。같은 책, 516쪽。

www.kci.go.kr

> 사미는 아직 도를 받지 못했으므로 종종 분노를 없애지 못하고 우바새와 나라 사람들을 둘러보고서 '나라 사람들이 내 스승을 이렇게 하다니, 용으로 하여금 비·모래·돌을 내리게 하여 이 나라를 흔들어 그들을 두렵게 하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자 사면에 모래비가 내려 성벽·집이 모두 파괴되었다. 스승이 말하길, "나는 전생에 소잡는 일을 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받게 된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짓는가? 너는 떠나서 다시는 나를 따르지 말거라!"라고 하였다.14)

이미 阿那含果를 얻은 스승은 전생에 지은 죄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억울하게 소도둑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전생의 죄업을 씻는 것으로 생각하여 꾹 참는다. 그러나 스승의 제자는 아직 수양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순간에 복수의 一念을 가졌다가 未來生에 畜生으로 태어날지도 모를 새로운 죄업을 짓고만 것이다. 이처럼 인과응보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선업은 지을망정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악업은 절대로 짓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로 아주 작은 선업을 짓더라도 그러한 선업의 결과로 인해 큰 보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역시 비유계 경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 외에도 승려들끼리 일상생활에서 수행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기록한 이야기가 있다. 예컨대 28, 29번 고사가 그것이다. 28번 고사는 3명의 승려가 도를 깨닫게 된 奇緣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이다. 아래에 인용해보기로 한다.

> 옛날, 세 명의 승려가 서로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 인연으로 도를 얻었는가?" [한 승려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라의 도성에서 포도들이 무성하게 익은 것을 보았는데, 해질 무렵이 되어 사람들이 와서 마구 따가니 모두 없어지고, 가지들은 땅바닥에 낭자하였다. 나는 이것을 보고 무상함을 느꼈

14) ……沙彌未得道。常有恚未除。顧見淸信士及國人。國人乃取我師如此。使龍雨沙石, 動此國令之恐怖。念此適竟, 四面雨沙。城塢屋室皆悉壞敗。師言。我宿命一世屠牛爲業。故得此殃耳。汝何緣作此罪乎。汝去不須。復與我相追。같은 책, 516쪽。

www.kci.go.kr

> 고 이러한 인연으로 득도하였다."라고 하였다. 한 승려가 말했다. "나는 물가에 앉아 있다가 어떤 부인이 팔을 움직여 그릇 씻는 것을 보았는데, 팔과 팔찌가 서로 부딪치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인연이 합쳐져야 소리를 내는구나'라고 깨달았으며, 이런 인연으로 득도하였다." 또 한 승려가 말했다. "나는 연꽃 핀 물가에 앉아 있다가 연꽃이 무성하고 아름답게 핀 것을 보았다. 저녁때가 되어 수십 대의 수레가 나타나서 사람과 말이 연못에서 목욕하면서 모두 꽃을 따갔다. '만물의 덧없음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도를 얻게 되었다."[15]

이 인용문은 아주 짧은 이야기이며 세 명의 승려가 나누는 대화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이야기 속에 인생무상의 진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첫 번째 승려는 무성히 열린 포도나무 가지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지가 꺾여 다 없어지고, 흩어진 포도나무 가지들의 낭자한 잔해를 보다가 만물의 무상을 느낀다. 두 번째 승려는 설거지하는 부녀자의 팔찌가 그릇과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인연은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다. 세 번째 승려는 연못에 핀 연꽃들이 목욕하러 나온 사람들에 의해 다 캐어져 흔적조차 없는 것을 보고 사물의 무상함을 깊이 느낀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록 짧은 콩트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얻은 느낌들이 서술되고 있어 마치 눈앞에서 보는듯한 생동감을 전해주고 있다.

3. 在家信徒의 因果應報를 강조한 고사

본 절은 佛陀 및 불타 당시 불제자들의 이야기나 후대의 佛弟子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로 在家信徒들의 인과응보에 얽힌 이야기가 주

15) 昔有三道人共相問。汝何因得道。曰我於王國中。觀葡萄大盛好。至晡時人來折滅取。悉敗狼藉在地。我見覺無常, 緣是得道也。一人曰。我於水邊坐。見婦人搖手澡器。臂鐲更相叩。因緣合乃成聲。我緣是得道也。一人曰。我於蓮華水邊坐。見華盛好。至晡有數十乘車來。人馬於中浴。悉取華去。萬物無常乃爾。我覺是得道也。같은 책, 515쪽。

www.kci.go.kr

요 대상이 된다. 재가신도 중심의 이야기 역시 善因善果와 惡因惡果를 강조하는 것은 그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음에 ≪구잡비유경≫ 3번 고사를 먼저 인용해보기로 한다.

> 옛날 어떤 국왕이 넓은 호숫가에서 사냥을 하다가 배고픔과 갈증 때문에 피로가 극에 달했다. 먼 곳을 보니 울창한 수목 속에 집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그곳으로 갔다. 그 집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왕이 음식과 과일 등을 요청했더니 요구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왕이 여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종이 아뢰었다. "나체이고 옷이 없다고 합니다." 왕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녀에게 주자 저절로 불이 일어나 옷을 태워버렸다. 이러한 일이 세 번에 이르렀다. 왕이 놀라서 그녀에게 물었다. "어떠한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는가?"16)

이 고사의 전개방식을 먼저 살펴보자. 어떤 국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그는 극도의 피로와 갈증에 시달리다가 숲 속에 사는 어떤 여인의 도움으로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고 허기와 갈증을 해결하였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국왕이 여인을 만나보고자 했으나 시종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옷이 없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괴이하게 여긴 왕이 자신의 옷을 벗어주었으나 옷이 저절로 활활 불타는 바람에 도저히 옷을 입혀줄 수가 없었다. 이처럼 비유고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불가사의한 사건을 만나게 된다. 다시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것이 사실 미처 몰랐던 과거사건의 인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국왕과 여인이 만나게 된 것은 현생의 인과관계 때문이지만, 국왕이 건네는 옷이 저절로 불타게 되는 까닭은 여인이 저지른 과거의 악업 때문이다. 여인은 스스로 국왕에게 자신의 과거업보를 고백한

16) 昔有國王。行射獵於曠澤中。大飢渴疲極。遙望鬱然有屋樹木。卽往趣之。中有一女人。王從求飮食果實之輩。所求悉得。王請女人與相見。侍人白曰。裸形無衣。王卽解衣與之。有自然火燒衣。如是至三。王驚問女。 何因如此。같은 책, 511쪽。

www.kci.go.kr

다. 즉, 그녀는 과거생에 국왕의 부인이었으며, 어떤 승려가 걸식을 하러오자 현생의 국왕이 그에게 옷과 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때 부인은 이미 식사를 제공했으니 옷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말한 인연 때문에 현생에서 옷이 없는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다. 반면 승려에게 옷과 밥을 제공했던 그 부인의 남편이자 현생의 국왕은 과거의 선업 때문에 오늘날 국왕이 되었으며, 역시 과거 부부였던 인연 때문에 현생에서 그녀와 재회하게 되었다. 마치 '種豆得豆'의 성어처럼 전생에 지은 선과 악의 결과가 현생에서 그대로 찍듯이 재현된 것이다.

다음으로 ≪구잡비유경≫의 7번 月女고사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이 고사는 과거에 지은 선업으로 인해 금생에 좋은 보답을 받게 된 이야기이다. 전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강의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옛날 어떤 국왕이 예쁜 딸을 낳아 이름을 月女라고 하였다. 그녀는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왕이 옷이나 보석을 주면 "저절로 그러하다(自然)"라고 말하곤 하였다. 화가 난 왕은 어느 날 거지가 궁중에 걸식하러 오자 그녀를 거지에게 주어 버렸다. 월녀는 겁을 내고 달아나려는 거지를 설득하여 이웃의 큰 나라로 함께 달아났다. 마침 이 나라에서는 왕이 죽은 후 후계자가 없었으므로 나라의 대신들이 성안의 모든 사람의 관상을 관찰한 후 월녀부부를 왕과 왕비로 맞이하였다. 월녀부부는 나라를 잘 다스린 뒤 부왕을 초청하여 크게 접대하였다.

이처럼 월녀부부에게 일어난 운명의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다. 월녀는 무슨 일에나 '저절로 그러하다(自然)'라고 대답하다가 결국 걸인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큰 나라의 왕비가 된다. 이 고사의 말미에는 佛 또는 佛弟子인지는 모르겠으나 '師'의 입을 빌어 그녀의 전생을 소개하고 있다.

> 스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월녀와 거지는 전생에 부부로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부인에게 밥을 가져 오게 하였다. 남편이 멀리서 보니 부

www.kci.go.kr

> 인과 승려가 물가에서 만나 머무르고 있었다. 승려가 부인에게 걸식하자 부인은 승려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고, 승려는 멈추어 밥을 먹었다. 남편이 멀리서 두 사람을 보고 나쁜 짓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들고 보러갔으며, 승려는 바람같이 달아났다.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의 몫은 남아 있으니 화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둘로 나눈 것을 함께 먹자고 하였다.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나쁜 마음을 먹은 까닭에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승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함께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17)

이 이야기에도 현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前生에서 행한 행위에 그 원인이 있음을 강조한다. 예컨대 월녀는 前因後果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父王에게 모든 것은 '저절로 그러하다(自然)'고 말한 것이다. 부왕은 그녀의 '自然'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너를 여태까지 키워주었는데 저절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하고 분노를 터뜨린다. 확실히 월녀는 인과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부왕이 그녀를 걸인과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저절로 그러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월녀는 아마 거지와 전생에 부부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인과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녀는 현생에서 걸인과 만나게 된 일 역시 우연한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다. 그녀가 현생에서 걸인과 부부로 만나게 된 것은 전생에서 그녀가 걸인과 부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걸인과 더불어 이웃나라로 간 월녀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왕비가 된 것도 월녀 자신에게는 그다지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自然'이라는 말 속에는 先因後果의 정연한 논리가 내재되어 있으니, 현생의 모든 사건은 개인이 현생에서 지은 모든 행위의 결과이자 전생에 지은

17) ……師曰。月女與乞兒宿命。夫婦俱田作。令婦取餉。夫遙見婦與沙門相逢於岸水邊止。從乞婦食。則分飯上道人。道人止飯。夫遙見兩人。不謂有惡。持杖往見。道人飛去。婦言。卿分自在勿恚。夫言。兩分者我與共食也。師曰。夫有惡意故墮貧家作子。後見道人歡喜自悔責故。同受此福耳。 같은 책. 512쪽。

www.kci.go.kr

모든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현생에서 지은 업보는 누구나 목격할 수 있으므로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전생에서 지은 업이 현생에서 지은 업보다 강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전생의 행위를 누구나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로서 일어난 사건만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어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 앞에서 소개한 裸女의 옷이 불타버린 사건, 걸인과 달아났던 월녀가 왕비가 된 사건 등은 전생의 악행과 선행 등이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이다. 사실 '師'[18]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놀랍고 신기할수록 이야기의 대상인 독자나 청자를 이야기 속으로 몰입시키기 쉽다. 예컨대 ≪구잡비유경≫의 15번 고사의 경우도 그 기이함에 있어서는 裸女고사나 月女고사 못지 않게 특이하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伊利沙는 인색한 노인으로 온갖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모아 큰 부자가 된 인물이다. 이리사는 큰 부자지만 한 끼 밥조차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한 가난뱅이 노인은 가난하면서도 날마다 맛있는 음식이며 고기를 먹고 이웃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리사가 '내 신세가 저 노인보다 못하구나'라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닭고기와 밥을 준비하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먹으려고 하였다. 이 때 帝釋天은 이리사를 시험하기 위해 개로 변신하여 이리사의 주위를 맴돌았다. 이리사는 인색한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기를, '네가 허공에 거꾸로 매달리지 않으면 이 음식을 주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개가 즉시 허공에 거꾸로 매달렸다. 놀란 이리사는 다시 '네가 두 눈을 빼어놓지 않으면 이 음식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의 생각처럼 땅에 개가 두

18) 대다수의 ≪譬喩經≫은 그 저자를 알 수 없다. ≪구잡비유경≫ 이야기의 말미에 '師曰'이란 구절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때 '師'란 용어는 佛陀를 의미하거나 위대한 聖者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비유고사를 청중에게 들려주는 法師를 의미할 수도 있다. 아무튼 ≪구잡비유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독자들은 어렴풋이 話者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 중국 通俗文學의 하나인 變文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민중에게 불경이야기를 쉽게 각색하여 들려주던 俗講僧이 있었는데, '師曰' 등의 구절을 보면 속강승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승려들이 있었던 것 같다.

www.kci.go.kr

눈을 떨어뜨리자 겁이 난 이리사는 음식을 주지 않고 그곳에서 달아났다. 이후 제석천은 그를 교화하기 위해 이리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의 집을 차지하고 그의 재물을 차지한 후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시하였다. 가짜로 여겨져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리사가 근심과 번민으로 괴로워하자 제석천이 또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그를 설득하면서 세간은 원래 괴로운 곳이며, 이 몸의 실체는 없다는 진리를 설파하였다. 이리사는 비로소 탐욕스럽고 인색한 마음을 멈추고 널리 보시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석천이라는 천신의 개입으로 이리사에게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은 신의 권능을 빌어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에게 일어난 기이한 사건 자체는 분명 독자나 청중의 흥미를 이끄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기이한 이야기의 전개보다 직접적인 문답식 대화를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구잡비유경≫ 10번 고사를 다음에 인용해본다.

> 옛날 어떤 국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불탑을 돌고 승려들에게 예배하자 신하들이 그것을 비웃었다. 국왕은 그것을 알고서 신하들에게 물었다. “황금이 솥 속에 있는데, 끓고 있는 솥 속에 손을 넣어 황금을 잡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국왕이 다시 묻기를, “찬물을 솥 속에 넣는다면 집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신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국왕이 말하기를, “내가 왕노릇을 하고 사냥을 하는 것은 마치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향을 피우고 연등을 켜거나 불탑을 도는 것은 마치 찬물을 끓는 물 속에 넣는 것과 같다. 대개 왕노릇하는 것은 선업과 악업이 모두 있으니 어찌 악업만 짓고 선업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19)

위의 인용문은 우화나 이야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답에 의해 선업에는 선과가, 악업에는 악과가 뒤따르게

19) 昔有國王。出射獵還。過繞塔爲沙門作禮。群臣共笑之。王覺知問群臣有金在釜。釜沸中以手取可得不。答曰。不可得。王言。汝冷水投中可得不。臣白王。可得也。王言。我行王事。射獵所作如湯沸。燒香然燈燒塔。如持冷水投沸湯中。夫作王。有善惡之行。何可但有惡無善乎。앞의 책, 512쪽。

www.kci.go.kr

됨을 강조한다. 비록 고사의 편폭은 짧지만 국왕이 적절하게 끓는 물의 비유를 들어 신하들에게 이야기의 취지를 확실히 전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작가의 메시지를 곧바로 전달하는 방법은 ≪구잡비유경≫에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1번 고사에서 한밤중에 야차귀신을 만나게 된 어느 승려 이야기의 사례이다. 흉악한 야차귀신이 승려를 붙잡고 "너를 잡아 먹겠다."라고 말하자 승려는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궁금해진 야차귀신이 "어째서 멀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승려는 "네가 나를 해치면 나는 도리천에 태어날 것이고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먼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야차귀신은 두려워하며 절하고 떠나갔다.[20] 이러한 문답법은 간결하지만 취지는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善因善果, 惡因惡果라는 주제를 즉각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예를 든 몇 편 이외에도 인과응보의 영향력을 강조한 이야기가 많으며 인과응보의 문제는 ≪구잡비유경≫ 전체에 일관되고 있는 주제이다.

4. 男尊女卑思考를 반영한 고사

고대 인도의 역사에 대해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로 삼을만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불타의 시대나 그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대체로 ≪리그베다≫라는 고대의 宗敎文學이 융성했던 시기의 후반부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문헌으로는 베다문헌 외에는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결국 고대 인도여성의 지위나 생활에 대해 불전만큼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헌이 많지 않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불전을 통해 고대 인도여성의 지위에 대해 역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21] 불전에 따르면, 비구니 교단의 성립을

20) 같은 책, 512쪽 참조.

21) 국내에서 출간된 ≪인도의 역사≫ 124-125쪽을 보면, 불타 在世時나 그 직후의 인도여성들은 모계사회와 부족사회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리그베다 후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가부장제의 권위가 점점 강해져 여성의 지위

www.kci.go.kr

요구하는 姨母 마하빠자빠티[22]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세 번이나 그 결정을 미루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마 당시에도 인도사회에 여성을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 실상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불전에서는 여성의 成道를 어려운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신체가 여러 가지 不淨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잡비유경≫에는 이러한 고대 인도의 남존여비관념을 반영하는 작품이 5편 수록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음란한 성격을 경계하라는 식의 내용이 많다. 먼저 ≪구잡비유경≫의 16번 고사[23]의 대강의 줄거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옛날 어떤 귀족의 아들이 금으로 美人像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어떤 아름다운 여인 역시 금으로 멋진 남자상을 만들어서 '이러한 남자가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2) 어느 날 국왕이 거울을 보다가 '세상에 나의 얼굴을 닮은 남자가 있는가'라고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 한 사람이 '아무개 귀족의 아들이 폐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이 사신을 보내 귀족의 아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오던 도중 귀족의 아들은 왕이 자신의 조언을 들으려 한다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 책의 주요부분을 보려고 하였다. 집에 돌아간 귀족의 아들은 뜻밖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얼굴이 추악하게 변해버린다.

(3) 왕의 사신은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추악해진 귀족의 아들을 왕에게 보일 수 없다고 여겨서 우선 그를 마굿간에 재웠다. 그런데 그날 밤, 귀족의 아들은 왕비와 마부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귀족의 아들은 '왕비도 저렇게 행동하거늘 내 아내가 일시적으로 간통함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여겼으며,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왕을 만난 귀족의 아들

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22) 성열, ≪고따마붓다≫, 문화문고, 295쪽. 마하빠자빠티가 출가할 때 석가모니는 8가지 조건을 내걸고 허락했는데, 이것은 비구니 八敬戒法으로 불리며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앞의 책, 513쪽.

www.kci.go.kr

이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자 왕은 공감하고 함께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도를 닦아 辟支佛이 되었다.

이 고사는 모두 현생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1), (2), (3) 사건들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1)에서 귀족의 아들과 그녀의 부인은 서로 오래도록 염원하다가 부부가 된다. (2)에서 국왕의 부름을 받고 떠나기 전 귀족의 아들은 아내의 간통을 목격하게 되고, 충격으로 얼굴이 하룻밤 사이 추악해져 하룻밤을 마구간에서 지내다가 왕비의 간통을 목격한다. (3)에서는 국왕이 왕비의 진상을 알고서 세상에 대한 정이 떨어진 나머지 세상을 버리고 입산수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고사의 주제는 여성의 정숙하지 못함에 대한 비난과 풍자이다. 이처럼 여성에게 음란한 면이 많다고 비난하는 까닭은 승단의 계율에서 不邪淫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타는 제자들에게 여인을 독사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지말라는 경계를 준 일이 있거니와, 인도 고대사회에서도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남성들은 여성의 정절문제를 중시하였다. ≪구잡비유경≫ 20번 고사도 여성의 정절문제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으로, 편폭이 짧기 때문에 全文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옛날 어떤 부인이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남자와 간통하였다. [그녀는] 모든 금은보화, 의복을 가지고 남자와 함께 달아나다가 물살이 센 곳에 이르렀다.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재물을 가지고 오시오. 내가 먼저 건넌 다음 마땅히 돌아와 당신을 맞이하겠소.” 남자가 곧장 가버리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부인이 혼자 물가에 있었는데 여우가 매를 잡았다가 매를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더니 결국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매도 놓치는 것을 보았다. 부인이 여우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두 가지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잡지 못했구나.” 여우가 말했다. “나의 어리석음은 그래도 괜찮지만 당신의 어리석음은 나보다 심하오.”[24]

24) 昔有婦人富有金銀。與男子交通。盡取金銀衣相追俱去。到急水邊。男子言。汝持財物來。我先度之。當還迎汝。男子便走去不還。婦人獨住在水邊。見狐捕取

www.kci.go.kr

여기서는 남자와 사랑의 도피에 나선 어떤 부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여우가 입에 매를 물고 물고기까지 노리다가 결국 물고기와 매 양쪽 다 놓친 것처럼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사랑의 도피행을 택한 이 부인은 여우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여우의 입을 빌어 두 가지를 노리는 여우 자신의 실수는 만회가 가능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부인의 앞길은 더 암울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성품을 비난하는 소재의 선택은 여성을 멀리하라는 소승불교의 계율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소승불교의 교리는 계율을 중시하며 여인을 멀리하도록 자주 설교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잡비유경≫ 61편의 이야기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佛陀와 그 弟子, 後代의 佛弟子, 在家信徒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은 다양하지만 보통 이야기의 구성은 前生고사와 現生고사가 前因後果式으로 긴밀히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阿羅漢의 果位를 선양하거나 菩薩의 果位를 선양하기도 하는 등, 소승불교의 교리와 대승불교 교리가 혼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소승불교의 교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남존여비관념이 반영된 작품의 경우를 보면 소승불교의 계율 중 不邪淫의 계율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

Ⅲ. 敍事形式의 特性

1. 구성 및 전개방식

비유경전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이 불교교리의 내용과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고사를 동원하여 현생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유고사는 대개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

鷹捨取魚。不得魚復失鷹。婦謂狐。汝何癡心。捕兩不得一。狐言。我癡尙可。汝癡劇我也。(같은 책, 514쪽)

www.kci.go.kr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즉 A-B식 구성이다. B를 '현생'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A는 B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 곧 '전생'의 사건에 해당된다. A-B의 순서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현생의 사건인 B가 먼저 서술되고 전생의 사건인 A가 나중에 서술된다. 또 특이하게 A-B-C식 구성, 즉 3단 구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A는 전생의 사건으로 현생인 B사건의 원인이 되고, 다시 B사건이 하나의 결과를 일으키면 B사건의 결과인 C, 즉 미래생이 미리 언급되거나 혹은 간단히 서술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분명 輪廻轉生, 前因後果와 같은 불교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서술구조인데, 현생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찾아 과거생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 일어난 사건의 장소나 인물, 기타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도 양자의 구조가 부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문에 비유고사는 각 사건의 장소, 인물 등 여러 가지가 세부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정교한 구성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61편의 고사를 전생(A)-현생(B)으로 이루어진 二段故事와 현생(B1)-현생(B2)으로 이루어진 二段故事, 현생의 사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一段故事(B), 현생의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 3개의 사건이 연속되는 고사(B1-B2-B3)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생과 현생의 두 가지 사건(A-B)으로 연결된 고사로서 2, 3, 4, 6, 8, 9, 13, 17, 27, 32, 33, 34, 35, 42, 61번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첫 번째 유형처럼 두 가지 사건의 연결이나 원인-결과를 강조하지만 현생사건(B1-B2)이 서로 연결된 것으로 1, 19, 20, 23, 24, 26, 29, 37, 40, 41, 55, 56, 57, 58, 59, 60번 고사를 들 수 있다. 셋째, 현생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B)이 중심이 된 것으로 5, 10, 11, 12, 14, 22, 25, 28, 30, 31, 36, 38, 39, 43, 44, 46, 47, 48, 49, 50, 51, 52, 53, 54번 고사를 들 수 있다. 넷째, 현생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의 사건(B1-B2-B3)이 결합된 것으로 15, 16, 18, 21번 고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61편의 고사를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고사로 34번 이야기의 예를 들어 비유고사의 기본적인 전개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www.kci.go.kr

魚身의 줄거리

(B) 옛날 어떤 큰 부자가 죽으면서 손도 발도 없고 몸뚱이만 있는 아들 魚身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 나라에는 力士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국왕의 주방에서 먹을 것을 도움 받고, 나뭇짐을 십여 수레씩 팔았으나 늘 배가 고팠다. 그는 큰 부자인 魚身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찾아간다.[현생]

(A) 力士는 손도 발도 없는 魚身이 자신보다 편히 사는 이유가 궁금하여 부처님께 찾아가 묻는다. 부처님은 역사에게 전생이야기를 들려준다. 迦葉佛의 시대에 지금의 魚身과 국왕은 가섭불에게 함께 공양을 드리러 가기로 했다. 역사는 가난했기 때문에 공양거리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돕기로 했다. 魚身은 모든 공양거리를 준비해주고 국왕에게 말하기를, "함께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나의 손발을 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양을 함으로써 巨富가 되는 과보를 받은 한편 그가 한 말로 인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러한 과거생의 이야기를 들은 역사는 因果律의 무거움을 깨닫고 느낀 바가 있어서 출가해 정진하였으며, 후에 阿羅漢이 되었다.[전생][25]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A가 먼저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위의 고사는 현생에서 일어난 사건 B가 먼저 서술된다. 큰 바위도 번쩍 들 수 있는 역사는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큰 부자인 魚身을 만나러 간다. 그는 손도 발도 없는 魚身의 풍족한 생활을 보고 어떠한 인연으로 천하의 역사인 자신보다 魚身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역사는 불타를 찾아가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전생의 사건 A를 들은 후 비로소 깨우침을 얻는다. 이와 같이 현생의 사건은 위의 고사처럼 앞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생의 사건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고사들은 前因後果라는 인과율의 원칙에 있어서는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하지만, 사건 자체가 모두 현생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고사 유형들과 구별된다.

25) 같은 책, 516쪽.

www.kci.go.kr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잡비유경≫ 26번 고사 줄거리:

(B-1) 옛날 어떤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들과 이층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 귤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 아래를 지나가던 한 童子가 귤을 집어 들고 말하기를, 그대가 결혼식 전에 먼저 나를 만나러 온다고 약속해야 이 귤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여자는 응낙하고 귤을 받아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다.

(B-2) 여자는 결혼할 때 남편에게 말하기를, 맹세는 중요한 것이니 결혼 전에 먼저 동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였다. 남편이 승낙하였으므로 그녀는 동자를 만나러 가지만 도중에 山賊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산적에게 동자와 약속한 일이 있으니 놓아달라고 한다. 산적이 그녀를 놓아주었는데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食人鬼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동자와의 약속을 내세워 이번에도 풀려날 수 있었다. 마침내 동자를 만났더니 동자는 그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금 한 덩어리를 주었다.[26]

위의 이야기처럼 둘째 유형의 고사는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사건이 과거생과 현재생을 오가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현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B-1과 B-2는 원인-결과식의 정교한 구성을 가질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위의 고사를 보면 B-1과 B-2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동자와 여인의 맹세가 실현되는 부분만 前因後果의 연관관계가 성립될 뿐, 기타 산적이나 식인귀의 출현 등은 전인후과식의 엄밀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의 고사는 두 번째 고사유형과 비슷하다. 다만 두 번째 유형이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결합됨에 비하여 세 번째 유형은 한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세 번째의 경우는 문답법을 운용한 사건의 전개와 서술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유형의 비유고사는 대화와 문답을 통해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전개된다. 세 번

26) 같은 책, 515쪽.

www.kci.go.kr

째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문체를 설명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네 번째의 유형은 현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건이 3개 이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제2장 제4절에서 소개한 ≪구잡비유경≫ 16번 고사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세 가지 사건이 현생에서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美女像과 美男像이 계기가 되어 귀족의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하게 된다(B-1). B-2에서 그 나라의 국왕이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남자를 찾다가 귀족의 아들을 소환한다. 귀족의 아들은 왕궁으로 가던 중, 대답할 자료를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내의 간통사실을 목격한다. B-3에서 국왕의 마구간에서 밤을 새게 된 귀족의 아들은 왕비의 간통사실을 목격한다. 귀족의 아들은 이러한 사실을 국왕에게 알리고, 이에 충격에 빠진 국왕과 귀족의 아들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자가 된다. 이처럼 네 번째 유형은 현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유형이며 7, 15, 16, 18, 21 등 5편에 불과하다. 네 번째 유형의 이야기는 비록 5편에 불과하지만 그 복잡한 전개방식과 구성이 중국 고전소설의 서사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구잡비유경≫ 18번 고사는 ≪荀氏靈鬼志≫, ≪續齊諧記≫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4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표현기교와 문체

앞 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잡비유경≫은 현생과 전생을 교차하면서 사건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二元的 전개방식이 ≪구잡비유경≫의 문체 및 표현방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작품 속 話者의 존재인데, 이 화자가 개입하는 부분은 전생의 사건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처럼 매우 긴 편폭을 차지할 때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고사를 소개한 이야기의 말미에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師曰)'이라는 서두와 함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또는 교리를 간략하게 해설하는 경우

www.kci.go.kr

가 많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이미 소개했던 ≪구잡비유경≫ 14번 아쇼카왕의 왕비와 젊은 승려의 비유고사를 살펴보면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첨부되어 있다.

>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전생에서의 운명이 없다면 끝내 해탈할 수 없으며, 또한 서로 만나 말할 수도 없고,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각기 본래의 스승이 있다.[27]

이처럼 이야기의 후반부에 '師曰……'로 시작되는 고사에 대한 講評이 ≪구잡비유경≫에서는 보통의 경전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유고사의 창작의도를 각인시킨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 A.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는 숙명의 배필이 있어 인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숙명의 배필을 만나게 되면 허락하게 되니, 짐승들도 이와 같다."고 하셨다.(17번 고사)[28]
>
> B.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대개 배움이란 마땅히 마음으로 사유하여 [마음이] 정밀해진 후에야 그 일에 통달하는 것이다. 대개 간략하면 통달하지 못하니, 이것은 스승의 허물이 아니다."라고 하셨다.(19번 고사)[29]
>
> C.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남자는 부인 때문에 그 자신을 죽인다."고 하셨다.(21번 고사)[30]
>
> D.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옛날 어떤 부인이 북쪽에 살았다. 추운 겨울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산의 남쪽으로 옮겨 갔다. 당시 한 나이 많은 부인은 가난해서 떠날 수 없기에 홀로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였다. 봄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자 노부인은 물건

27) ……師曰。人無宿命終不從解。亦不相見語言。終不入意。人各有本師也。같은 책, 513쪽。
28) ……師曰。人有宿命對。非力所能制也。逢對則相可。諸畜生亦如是也。같은 책, 514쪽。
29) ……師曰。夫學當以意思惟。乙密乃達之也。夫簡略者不至。非師之過也。같은 책, 514쪽。
30) ……師曰。癡男子坐婦欲殺身也。같은 책, 514쪽。

www.kci.go.kr

하나하나를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길, "그 때의 홀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이다. 전생에 여러 사람의 재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셨다.(27번 고사)[31]

비유고사의 모든 후반부에 이러한 강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 정도의 이야기에 강평이 첨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비유고사는 원래 法師일 수도 있고, 이야기로 교훈을 전하는 일반적 의미의 '스승'일 수도 있는 어떤 話者가 종교적 교리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 B, C의 경우 이야기의 교훈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이지만, D고사의 경우는 불타가 직접 화자로 등장하여 절대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노부인의 福業이 바로 전생의 善行에서 온 것임을 부연설명하고 있다. 즉, D고사만 따로 분리할 경우 전생이야기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師曰'의 강평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간혹 편폭이 아주 긴 것도 등장하지만, 절반 가량의 작품에는 '師曰'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고정적인 형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후반부에 첨부되어 있는 강평과 더불어 ≪구잡비유경≫의 고사에 주로 나타나는 문체상의 특색은 이야기 전체가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답으로 구성된 대화체 형식을 동원하여 전체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작품의 수량은 꽤 많다. 10, 11, 12, 28, 31, 47, 49, 50, 51, 52, 54번 고사 등 최소 11편의 이야기가 문답을 주고받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본다.

옛날 어떤 국왕이 사람을 시켜 선지식을 불러왔다. 선지식이 국왕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때마침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일곱 가지 보배를 파묻으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국왕은 크게 놀라서 다시 사람을 시켜 불

31) ……佛言。昔有一婦人居北。陰寒至冬天。人人悉度山南。時有老獨母。貧窮不能行。獨止爲衆蓋藏器物。春人悉來還。母以物一一悉付還其主。衆人皆歡喜。佛言。時獨母者是汝母。前世護衆人物故。得是無所亡福耳。 같은 책, 515쪽。

www.kci.go.kr

렀다. 선지식이 국왕에게 대답하길 “지금 막 구덩이에 보배를 넣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국왕은 곧 다시 오게 했다. 선지식은 왕에게 “지금 때마침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땅을 고르는 것이 끝나면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국왕이 물었다. “너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일곱 가지 보배를 파묻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가?” 선지식이 대답했다.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여 부처님과 승려들에게 제공한다면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과 밥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구덩이에 보물을 묻는 것입니다. 땅을 쓸고 씻을 물을 준비하고 경전의 이치를 밝히는 것은 땅을 고르는 일입니다.” [선지식이] 아뢰기를, “이 보배들은 다섯 가지 재난이[32]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33]

위의 인용문은 ≪구잡비유경≫ 12번 고사이다. 등장인물은 국왕과 한 善知識이며, 불필요한 동작 및 공간적 배경의 묘사 등은 일체 생략되어 있다. 비유고사의 장점은 어떤 교훈을 전달함에 있어 하나의 비유나 우화를 동원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고사에도 국왕과 선지식은 ‘칠보를 숨긴다’는 하나의 비유적 소재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국왕의 부름에도 불응한 선지식은 지금 막 일곱 가지 보배를 땅에 파묻고 있다는 이유를 댄다. 국왕은 상대방이 보배를 숨기고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만일 선지식이 처음부터 佛·法·僧 三寶에 대한 공양은 보배를 심는 것과 같다고 설교조로 이야기했다면 이야기의 전달효과는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식은 우선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보배를 땅에 감추고 있다는 연기를 통해 국왕의 궁금증을 유발하였으며, 결국 국왕의 歸依心을 일으켰다. 위의 이야기는 이러한 형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답의

32) 물, 불, 도적, 관청, 악인, 孫昌武, 李賡揚 譯注, ≪雜譬喩經譯注≫(四種), 中華書局, 2008. 27쪽 해설 참조.

33) 昔有國王。令人呼知識。知識言謝王。適穿地作坑。欲藏七寶。王聞大驚。令人復呼知識。白王。今適下寶著坑中。王便復令呼知識。白王。今適下平地。平地已便往。王問。汝何痴。藏七寶以語人耶。知識言。屬饌具甘美。欲飯佛及比丘僧。是爲穿地作坑。斟布羹飯。是爲下寶坑中。掃地行澡水闡經。是爲平地。白王。此寶五家不能辱也。앞의 책, 512-513쪽。

www.kci.go.kr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28번 고사에서 세 명의 승려가 자신들이 도를 깨닫게 된 체험담을 이야기할 때도 대화체 방식을 운용하고 있고, 31번 고사에도 이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즉 불타가 공양거리를 바리때에 담아주는 한 부인에게 이 하나의 선행이 씨앗이 되어 천 개, 만 개, 억 개의 씨앗이 열릴 것이라고 축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놀란 그녀의 남편이 “고오타마시여, 한 그릇의 밥이 어떻게 그런 큰 과보를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불타는 “니그로다 나무의 씨앗을 심으면 겨자만한 씨앗이 자라서 몇 십리를 덮을 수 있는 큰 나무를 만들고 그 열매가 한량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였다.[34] 문답식의 대화체는 이처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쉬운 방식으로 즉각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유계 불전인 ≪구잡비유경≫은 그 표현기교나 문체에서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확실히 중국 고유의 문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Ⅳ. 중국 고전소설에 미친 영향

중국 고대 文言短篇小說의 발생과 발전과정에서 한역경전과 불교사상의 전파가 문언소설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漢代 이래 중국 고전 서사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은 歷史散文이었으며, 중국 고대소설의 발전은 東晉시대의 干寶가 ≪搜神記≫를 편찬할 때까지 침체되어 있었다. ≪搜神記≫에 수록된 400여 편의 志怪小說은 神仙·博物·災異 등의 각종 제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고대 중국인의 상상력 수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괴이한 현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 東晋이래 불교가 중국사회 전반으로 보급되고 또한 전파를 위해 다방면으로 중국사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지괴소설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인들은 불

34) 같은 책, 515-516쪽 참조.

www.kci.go.kr

교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神仙과 阿羅漢이 다른 개념이며 道士와 僧侶, 仙界와 極樂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설가들은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기이한 이야기와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因果應報論에 주목하였다. 불교경전의 교리와 고사들은 중국 고대소설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신은 일찍이 ≪中國小說史略≫에서 ≪荀氏靈鬼志≫와 ≪續齊諧記≫에 나오는 작품 한 편이 ≪舊雜譬喩經≫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35] 아래에서 이들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세 작품의 연관관계를 비교해 본다.

(1) 옛날 어떤 국왕의 왕비가 태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生母이나 아직 나라 안을 구경하지 못했다."라고 하므로, 태자는 부왕의 허락을 얻어 왕비가 세상을 구경하도록 했다. 태자는 왕비가 인사하러 오는 뭇신하들에게 휘장을 젖히고 자신의 용모를 보여주자 정숙하지 못하다고 여겨, 복통이 났다고 핑계대고 숲속을 방황하다가 어떤 梵志를 나무 위에서 훔쳐보게 된다. 梵志는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난 후 밥을 먹는데, 입속에서 항아리를 토해내더니 항아리에서 나온 여인과 식사도 하고 유희를 즐겼다. 범지가 여인의 옆에서 잠들자 여인은 자신의 입에서 항아리를 꺼내 숨겨두었던 젊은 남자와 밀회를 즐겼다. 범지가 잠에서 깨려하자 여인은 남자와 항아리를 입속으로 넣었고, 범지 역시 여인과 항아리를 입속에 넣고 길을 떠났다. 태자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父王께 아뢰어 그의 도술을 시연해 보이게 한 뒤, 여인은 이처럼 정욕이 강하니 후궁의 여인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건의한다. (≪구잡비유경≫ 18번 고사)[36]

(2) 太元 12년, 한 외국승려가 중국에 왔는데 그는 칼을 삼키거나 불을 내뿜을 수 있었으며, 어떤 속인에게 비법을 배웠다고 하였다. 그는 일찍이 어깨에 광주리를 메고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말하

35) 魯迅, ≪中國小說史略≫, 동방출판사, 1996, 34-36쪽. 제 5편 <六朝志怪>(上)의 말미에서 노신은 ≪續齊諧記≫의 '陽羨書生'고사와 ≪荀氏靈鬼志≫의 '外國道人'고사 全文을 소개하고 있다. 노신은 이들 육조지괴가 ≪舊雜譬喩經≫ 등 불교경전의 고사에서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36) 앞의 책, 514쪽 참조.

www.kci.go.kr

길 나는 몹시 피곤하니 그대 광주리에 들어가서 함께 가자고 하였다. 이에 그가 허락하니 그 남자가 광주리에 올라탔지만 무게를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몇 십리를 가다가 나무 밑에서 쉬게 되자 그는 그릇과 음식, 아름다운 여인을 입속에서 꺼내 함께 즐겼다. 남자가 잠들자 여인은 자신의 입속에서 젊은 남자를 꺼내어 함께 먹고 즐겼다. 그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여인은 급히 젊은 남자를 입속으로 넣었고, 이어 잠에서 깬 남자는 여인과 그릇들을 입 속에 넣고 길을 떠났다.(≪荀氏靈鬼志≫ 17번 고사)[37]

(3) 陽羨출신의 許彦이 길을 가다가 그가 메고 가는 鵝籠[거위새장]에 태워달라는 어떤 書生을 만나게 되었다. 허언이 응낙하자 그 서생이 鵝籠에 올라탔으나 허언은 조금도 그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이윽고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 서생이 입 속에서 구리로 만든 상자를 꺼내자 상자 안에는 향기로운 술과 반찬이 가득하였다. 술을 몇 잔 돌리며 마시던 서생이 내 여인을 합석시켜도 좋겠느냐고 묻더니 입 속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을 토해냈다. 함께 즐기다가 서생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여인은 비밀을 지켜주겠느냐고 묻더니, 한 남자를 입 속에서 꺼내 함께 즐겼다. 여인이 잠이 들자 젊은 남자는 비밀을 지켜 주겠냐고 묻더니 입 속에서 한 젊은 여인을 꺼내어 함께 즐겼다. 서생이 잠에서 깨어나려 하자 남자는 황급히 젊은 여인을 입에 넣고 잠자던 여인을 깨웠다. 잠자던 여인은 급히 남자와 물건들을 입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난 서생은 여인과 물건들을 입에 넣고 허언과 작별하였다.(≪續齊諧記≫ 8번 고사)[38]

(1)은 ≪구잡비유경≫ 18번 고사로 고사의 맨 끝에 나오는 '師曰, 天下不可信, 女人也.'라는 評語에서 여성은 본래 淫慾이 많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여성비하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는 東晋시대 전후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荀氏靈鬼志≫에 수록된 고사이다. 남자가 입에서 토하는 것이 항아리에서 광주리로 바뀌었으나 입속에서 나온 한 여인이 또 젊은 남자를 입에서 토하여 만남을 가지는 점은 (1)과 비슷하다. 그리고 (2)는 작품 속 화자가 西域 또는 인도로 추정되는 외국 승려로 설정되어 (1)의 원형고사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여인을 비하하

37) 魯迅, ≪古小說鉤沈≫, 濟魯書社, 1997, 124-125쪽 참조.
38)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1999, 1006-1007쪽 참조.

www.kci.go.kr

기 위한 목적이나 여성의 음란한 성품을 비난한다는 목적은 없는 듯하다. 이 이야기와 함께 한두 가지의 방술고사가 부가되어 있는데, 모두 외국승려의 기이한 方術 시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3)은 梁代 吳均의 ≪續齊諧記≫에 수록된 고사로서 작품 속 화자 자체가 陽羨 출신의 許彦이고, 방술을 부리는 주인공은 鵝籠에 태워달라고 부탁한 어떤 서생으로 되어 있다. 즉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중국식으로 변용되어 있으며 불교적 색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후대의 문언소설가들이 가끔 양선서생의 고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이야기가 중국 고대 문언소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속제해기≫의 양선서생고사는 영향관계가 매우 분명한데, 이 밖에도 여타 작품이 후대의 고전소설 서사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구잡비유경≫ 1번 고사에서 불법을 굳게 믿는 상인 '薩薄'이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험로를 지나다가 叉鬼를 만나게 된다. 薩薄은 양손과 양다리로 귀신을 물리쳤으나 다시 귀신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薩薄이 叉鬼를 만나기까지는 산문으로 서술되다가 살박과 차귀가 서로 생사의 결투를 벌이며 나누는 대화는 시로 표현되어 있다. 먼저 차귀가 묻는다. "손과 발 및 머리, 오체가 꽁꽁 묶여 있다. 다만 앞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일 뿐, 뛰쳐나간들 다시 어찌 하겠는가?(手足及與頭, 五事雖絆羈。但當前就死, 跳踉復何爲?)"[39] 살박이 이에 대답한다. "손과 발 및 머리, 오체가 비록 꽁꽁 묶여 있어도 마음은 마치 금강과 같으니 끝내 네가 칠 수 없으리라.(手足及與頭, 五事雖被繫, 執心如金剛, 終不爲汝擊)"[40] 이처럼 산문 가운데에서 대화내용만을 五言詩로 전달한 것은 분명 원래의 문장이 운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언시로 번역한 듯하다. 그런데 중국 고대 산문에는 이처럼 운문-산문이 결합된 형식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구조는 ≪구잡비유경≫ 속에 한 편에 불과하지만 ≪구잡비유경≫이 아니더라도 불교경전에서는 운문-산문으로

39) 앞의 책, 510쪽.
40) 같은 책, 510쪽.

www.kci.go.kr

결합된 문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문 속에 운문을 넣어서 서사양식의 변화를 꾀하는 수법은 불교경전의 역경문체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불교를 신봉하는 문인들에 의해 점차 전파되면서 당대 전기소설과 송대 이후 문언소설에 이르러 하나의 정형화된 서사양식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운문과 산문을 결합하여 표현한 것은 불경의 역경문체가 중국 고대 서사문학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사양식은 唐代 傳奇의 실험적인 시도를 거쳐 宋代 문언소설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사양식이 되었다.

Ⅴ. 結 論

한역경전이 중국고대 서사문학, 특히 중국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梁啓超, 胡適 등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역경전 중의 譬喩系佛典은 다양한 이야기구조와 주제사상으로 인해 특히 중국 고전소설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譬喩系佛典 가운데 하나인 ≪舊雜譬喩經≫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大正新脩大藏經≫本을 기준으로 할 때 ≪구잡비유경≫에는 총 61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小乘佛教教理의 선양 및 因果應報觀念 등을 강조한 것이다. 61편의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신분유형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佛陀 및 弟子들의 果報故事 둘째, 後代 승려들의 과보고사 셋째, 在家信徒들의 과보고사 넷째, 男尊女卑觀念을 반영하고 있는 고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처럼 신분유형에 따라 많은 인물이 등장하며, 이들 등장인물의 숫자만큼 다양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因果應報와 阿羅漢觀念의 선양 등 소승불교 교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菩薩觀念의 선양, 在家居士의 깨달음 등을 강조하는 유형도 있으나 전체 비율로 볼 때 대승불교 교리보다 소승불교의 교

www.kci.go.kr

리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구잡비유경≫ 비유고사의 주요 서사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이야기는 本生(前生)이야기와 現生이야기로 구분되는 二元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전생과 현생의 二元고사는 원인-결과식의 因果關係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현생의 고사가 여러 개 연결된 경우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도 기본 구조는 원인-결과식의 서술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10여 편의 비유고사는 문답식의 대화체로만 한 편의 고사가 이루어진 사례들인데, 상호간의 문답을 통해 주제와 교훈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교가 우언고사보다 훨씬 생동감있게 전달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구잡비유경≫에 나타난 인과응보관념에 대한 반영과 환상적인 지괴고사는 ≪續齊諧記≫의 陽羨書生처럼 중국고전소설의 발전과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육조지괴소설 가운데 이른바 釋氏輔敎之書와도 적지 않은 영향관계가 있으며, 당대 전기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 구성의 신비함, 人生如夢의 주제의식, 시와 산문의 결합 등 ≪구잡비유경≫에 나타난 이야기구조가 후세의 소설양식과 내용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잡비유경≫은 譬喩系佛典 중에서 매우 풍부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불전이다. 이 경전 중의 우언고사들은 고대 인도 민간에 전래되던 갖가지 민간설화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구잡비유경≫이 중국에서 번역되어 책으로 만들어진 후 특히 불교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사문학과 지괴소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參考文獻>

≪舊雜譬喩經≫, ≪大正新脩大藏經≫ 제4권.
한글대장경 ≪賢愚經外・舊雜譬喩經≫, 동국역경원, 1987.
孫昌武, 李賡揚 譯注, ≪雜譬喩經譯注≫(四種), 中華書局, 2008.

www.kci.go.kr

魯迅, ≪中國小說史略≫, 東方出版社, 1996.
魯迅, ≪古小說鉤沈≫, 濟魯書社, 1997.
胡適, ≪白話文學史≫, 東方出版社, 1996.
丁敏, ≪佛教譬喩文學研究≫, 東初出版社, 1996.
上海古籍出版社編, ≪漢魏六朝筆記小說大觀≫, 上海古籍出版社, 1999.
陳蒲清, ≪中國古代寓言史≫, 湖南教育出版社, 1983.
陳洪, ≪<舊雜譬喩經≫研究>, 宗教學研究 2, 2004.
유성욱, ≪인도의 역사≫, 종교와 이성 2007.
성열, ≪고따마 붓다≫, 문화문고, 2008.
히라카와 아키라 저, 이호근 역, ≪인도불교의 역사≫, 민족사, 1994.

<中文提要>

漢譯經典, 其中譬喩系佛典影響到中國古代小說的形成及發展。關於這一點, 魯迅・梁啓超・胡適等文學專家已經指出漢譯經典的敍事文體加强中國古典文言小說的形成和發展。本論文的研究主題也是譬喩系佛典, 其中對於≪舊雜譬喩經≫的敍事形式及對於中國古代文言小說形式的影響關係進行研究。譬喩系佛典一般具有兩個部分的敍事結構: 本生(前生)故事與現生故事。本生故事與現生故事可以說是前因後果的因果關係。≪舊雜譬喩經≫的敍事結構也具有本生故事與現生故事的二元結構。這樣的結構可以說是最普遍的形式。另外, 十餘篇故事的整個內容使用問答式結構。≪舊雜譬喩經≫一共具有六十一篇寓言故事。按照在各個故事中出現的人物身分來分別的話, ≪舊雜譬喩經≫的整個故事可分爲四個類型的內容: 第一, 佛陀和其弟子們的因果報應故事。第二, 佛陀以後僧徒的因果報應故事。第三, 在家信徒的因果報應故事。第四, 反映古代男尊女卑觀念的故事。雖然這四種類型的故事, 內容很複雜, 種類也很多, 但是我們可以知道整個故事的中心思想是因果報應・阿羅漢等小乘佛教教理的宣揚。一些故事的內容可以說是反映大乘佛教的觀

www.kci.go.kr

念, 例如菩薩・居士悟道等。但這樣的故事內容並不多。我們可以說≪舊雜譬喩經≫的寓言故事影響到中國古代文言小說的形式和內容。例如, ≪舊雜譬喩經≫中第十八故事顯然影響到≪荀氏靈鬼志≫的外國道人與≪續齊諧記≫的陽羨書生故事。其他中國古代志怪小說及傳奇小說的結構和主題思想也受到≪舊雜譬喩經≫故事的敍事結構影響。總而言之, 我們可以說是≪舊雜譬喩經≫是充分值得研究的一部譬喩系佛典。

주제어 : 舊雜譬喩經, 譬喩故事, 因果關係, 因果報應, 小乘佛教

www.kci.go.kr

www.kci.go.kr